故敎正李龍虛猊下의放光

光明山人大世

無相으로宗을삼고 寂滅로樂을삼는우리佛家에서 神通放光이 무엇이그리大驚하며 舍利靈骨이무엇이그리特異하랴? 然이나 無相만이宗旨가아니오 寂滅만이眞樂이아니다 無相이지만 爲他作則的方便을 베풀기爲하야 一片靈骨을 死後에찾치며 寂滅이지만 眞空妙有的宗旨를 實踐키爲하야 一道白光을 天空에放함이 眞實로 世人과特異한出家道人의 崇高한能事일것이다。

이러한能事를行하야 凡人凡行의 吾人으로하야금 意外에切實히 不思議的衝動을 늣기게한出家道人이 한분계시니 그늣곳 俗離山法住寺에 住錫하시던 故敎正李龍虛老師시다。

老師는 距今六十二年前 京畿道安城郡陰竹面保體里李州李氏輝晩의長男으로 태여나셧섯다。그리하야 十六歲에安城靑龍에서得度하시고 爾來公州東鶴 長城白羊等地에서 一代時敎를終了하신後 곳 安城靑龍 公州麻谷 報恩俗離에서 數十名學人과함가지 宗風을大揚하셧섯다。그런데 사람으로하야금 老師를崇敬케함은 老師의淳수한 그講學보다도 隆重한德望그것이 사람으로하야금 老師를崇敬케ㅁ다。 老師는 戒定慧三學이 俱備하신現世에보기듬은 典型的人物이시다。佛事以外에 雜事가없고 佛語以外에閑話가없다 戒律로生命을삼고精進으로日課를삼으셧다。生物을對함에 慈悲로써하시고 大衆을敎함에 德望으로써하셧다。各種漢藥을注文하야 놋코 漢方醫書를드려다보시며 病드려누은 金三李四에게 湯藥을손수다려 効하는니도 老師시며 에씨기를 김장白菜에 왼갓 虫群이 襲擊하야 白菜全部가 全滅狀態에이름을보시고도 侍奉으로하야금 一虫도살지못하게하시는 極端的不殺生主義者도老師이시다。그리하야 三升餘의 生菜를 도적질해간鼠群으로하야금 가쳐갓던밥을 도로갓다놋케한니도 老師가아니면 볼수없는일이오 (往年本誌不思議靈怪異한鼠生員參照) 老師의房에옹을거리는 數많은빈대로하야금 老師에게는 小許도 侵犯함이없게한니도 老師가아니면 볼수없는일이다。

老師는 性品으로만 이렇게典型的高僧이아니라 儀表로보와도亦是그리하시다 于先 柔軟輕淸한그音聲! 듯는사람으로하야금 처음로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고개가수기여진다 慈悲的威嚴이 眞實로이것일것이다 더욱이 無儀施食席上에 올녀나오는 梵唄아닌老師의梵唄聲은 참으로增上에 靈魂이 感動하는것갓다。淸國式도아니오 佛式도아니오 朝鮮式도아닌同時에 또한淸國式이오 朝鮮式이오 佛式인 素朴한老師特有의 거무스름하고도 허여스름한衣服 慈愛스러운老顔에 걸치고나오심을보면 오직老師에限하야서만 사람으로하야마음을平和하게하고우숨을웃게할뿐이다。

속고큰웃한 老師의兩眼 平人보다좀크고넓적한두귀 조곰뻑뚜러진웃한입 크고작도아니하나 좀銳한웃한몸貫여온兒孫가거리가는것갓치 제발나여여놋는거룹무엇이던지 老師에게는질調和가되야 사람으로하야금 부드러운好感을주게할뿐이다。

이러한老師로서 世緣이稀함인지 淨土가그립던지舊四月二十四日六十二歲를 一期로하시고 報恩俗離寺에서 고요히 寂滅하시엿다。人世를去하심에도 凡人과特異하시엿다。四月二十四日午後六時까지도健在하시던老師가 突然히 十六歲되는少年侍奉兒을불너서 알헤안치고 「내가지금죽을터이니너도같이念佛을하여야하겠다 자!念佛을하자」하시고侍奉과한가지 南無阿彌陀佛第六唱에이르러 고요히 殞命하시엿섯다。

日常의行動居止가 平人과다르니 最後臨終도따라서特異할것은 定할것이다 미루워死後에도必然코 무슨奇蹟이있을것도定한理致다。

澄淸한淨水에 엇지皎 한月光이빗춤이없으랴? 果然入滅當夜에 報恩庵附近(鶴泉庵羅漢殿에서運命하셧슴)에서大空에亘한一大白虹갓은 異常한一道白光이 無窮한空間에 곳없이기운차게 빠치여있음을大衆과 아울너隣近사람이보왓다하다 더욱이 俗離寺로붓터 二十里許에在한 龍華洞居里은 더욱똑똑히 이夜半에白光을보고서 무엇인지는모르고 그저大亂이이러날 凶兆라고認定하고 一時騷動까지하얏다한다

오! 僧行紊亂이 其極에達하고 德性破壞가 其頂에至하려는 이 季末에 있어 老師의崇高한 活躍을뵈옵게되니 在世하시든 곳때보다 幾倍나더 敬仰하옴을 마지안는바이다。(終)

本誌十一月號에는 天下의聖境인 白頭山의 紀行文이 滿載되것사 외다

佛敎社 白